



미사, 전례

평상시 몸에 익은 좋은 운전 습관이 도로 표지판이 전해주는 안내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고 운전자를 지켜 주듯이, 미사와 전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 주면서, 그리스도처럼 살 때 우리 또한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하나의 안내판, 신앙 표지판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자면 평상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출처: 제대와 감실의 싸움- 분도출판사)

전례가 되기 위한 조건

I. 전례거행의 주체 “❤️❤️”

그리스도는 아직도 역사의 표지 안에 숨어 계신다. 그분이 부활한 모습으로 충만한 천상에서 계신다 해도 또한 실재로 교회에, 아니 모든 역사 안에 현존하신다. 이 사실은 아직도 구약성경을, 또 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든 종교들을 돌아볼 필요성을 설명하며, 또한 모든 다른 ‘부분적 표지’들을 포함하는 ‘종합적 표지’로 드러나, 그리스도의 역할 안에서 ‘최상의 역사적 주체’를 확립하는 교회를 강조한다.

교회는 강성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사요, 정배이며, 신비체이다(교회현장 7-8참조). 이런 배경에서 전례현장은 “모든 전례의식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성교회의 행위”(전례현장 7)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시나이 산의 경우보다 훨씬 더 왕다운 거룩요 사제적 백성이다(교회현장 10-11참조). 그 결과 **교회는 전례행위의 주체이다**. 교회 공동체는, 특히 성찬례를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in persona Christi) 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최상의 ‘교회의 행위(opus operantis ecclesiae)’는 바로 그리스도의 행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 신학에서 성사의 사효성(opus operatum)이라 부르는 부분 -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사제적 중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사제적 삶이 이해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중개 안에서이다.

전례행위의 주체로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어떤 개념을 언급하는지, 또 전례를 거행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성화하는 교회에 대해 무엇을 알아들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교회는 그저 ‘교계제도-교회’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교회’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교회현장 4)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례행위의 주체이다**.

★ 1. 전례행위의 주체인 교회

전례행위는 몇몇 특권을 가진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온 교회의 행위이다(전례헌장 26참조).

즉, 전례행위의 완전한 주체는 항상 구별하지 않은 교회 전체,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로 결합된 교회이다. 다른 한편, 만약 전례와 각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한 쪽 사람들의 사제직과 다른 쪽 사람들의 비사제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제직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주어지는 차이이다. 또한 만약 수품된 봉사자가 홀로 전례를 거행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거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그는 주님의 제정에 의해 교회의 봉사자이지, 공동체의 위임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최종적이고 초월적인 주체는, 교회를 전례회중과 집전자, 공동체와 교계제도, 백성과 사목자 등이 함께 하는 유기체로 체계화하여 사제적 몸(그리스도의 신비체)으로 만든, 그리스도 그분이다.

★ 2. 전례회중은 교회를 드러낸다.

전례회중이나 예배를 위해 모인 공동체는 모든 인류를 위해 세상에서 그렇게 사제직을 수행하는 교회-구원의 성사의 진정한 현시이다(교회헌장 1. 8; 전례헌장 2. 5. 26; 사목헌장 40). 전례회중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현존과 행위를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건설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조건이다. 특히 전례회중에서 교회는 자리매김의 구체적 형태를 발견하고, 이로써 그곳에 교회가 있고 선교와 증거의 사명을 가진다는 것이 증명된다.

★ 3. 전례회중의 능동적 역할

‘전례회중이 전례거행의 주체’라는 것은, 그 안에서 각각 서로 구별되고, 각자는 자신에게 속한 부분을 행하지만, 그 결과는 전체의 행위가 되는 ‘복수주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례거행의 순서는, 다양한 품계와 직무로 구성되는 교회를 드러내어야 하고, 하느님의 백성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분명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전례거행 장소의 일반적인 준비는 그곳에 모이는 전례회중의 형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전례회중이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이며, 전례거행의 드러나는 행위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전례회중이 모이고, 기도하고, 경청하고, 응답하고, 감사드리고, 봉헌하는 등은 바로 교회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례회중이 전례를 거행한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전례회중은 근원적인 집전자이며,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중개자이며, 그의 실체(현존) 안에서 사제와 직무자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례를 거행한다.

II. 전례거행의 장소 “❤️❤️”

★ 1. 그리스도교 예배를 위한 공간

1) 성경에 나타난 예배를 위한 건물 🍇

로마인들과 마치 한가지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선 신상으로 형상화 된 신이 머무는 집이었다. 작은 방이어도 충분했다. 힌두교 전통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모일 필요가 없었으니: 신은 사제들에게 맡겨진 희생제사와 신도들의 개별적인 봉헌물들을 기다리고, 또한 그뿐이었다.

구약성경에서, 거룩한 장소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와 동일하게 신의 현존과 행위의 눈에 보이는 경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택의 표지였다: 즉 온 땅의 하느님께서 특별한 한 장소에 나타나시고, 특별한 한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장소는 성경적 종교를 특징 지우는 두 개의 커다란 긴장이 함께 하는 장소로 위치한다.

모든 유대인처럼 예수께서도 성전에 다녔고 그것을 존경하셨다. 그러나 복음사자들은 예수 또한 예언자들처럼 성전을 비판했음을 기억하는데 일치하고 있다(참조. 마태 21,12-13; 마르 11,15-19; 루가 19,45-48, 요한 2,14-16). 성전에 대한 예수의 비판은 의회 앞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분에게 부과된 고발들 중의 하나였다(참조. 마르 14,58). 또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평화롭게 성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다닌다(참조. 사도 2,46). 그러나 그리스계 집단의 대변인인 스테파노는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낸다(참조. 사도 7). 성전을 받아들이면서도 비판하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구약성경적 환경, 즉 예언자들의 노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신약의 참신성은, 인간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참된 공간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참조. 요한 2,21; 1,14). 예루살렘 대성전은 미리 보여주는 표지(=예표)였다(참조. 히브 9). 거기에 이어서 바오로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교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결합된 공동체라고 말한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돌(그리스도)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에페 2,21-22; 참조. 2코린 6,16). 또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자 각자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다(참조. 1코린 6,19-20).

2) 예배를 위한 건물의 역사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건물들은 신을 위한 성전이나 기념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기도를 위해 전례회중이 모이기 위해 마련된 '전례회중의 집'(='교회의 집' domus ecclesiae, oikoi ekkles as)이다. 여기에서 유래한 '교회'라는 이름은 나중에 건물 자체에 주어진다. 결국 예배를 위한 건물은 지역교회가 공간 속에 드러나는 이콘이며, 생생하고 선택된 돌로 건설된 영적 건물을 위한 필수적인 은신처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한다: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건설되었지만,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 2. 예배를 위한 건물의 공간배치

예배장소의 요소와 공간들의 배치는, 전례회중에게 정확한 장소를 제공하여 전례거행과 전례회중의 필요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배치를 통해서 '전례회중의 신비' 자체를 표현하는 역할도 함께 맡아야 한다.

하느님의 백성의 이상적인 위치는 제단(presbyterium)과 본채(navata) 사이인데,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통교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제단(presbyterium)과 본채와 그 밖의 여러 구성 요소들의 그리스도교 건축의 역사는 예배를 위한 건물의 거룩한 공간 배치를 지배한 각 시대의 다양한 교회론을 비추어 준다. 환경의 통일성은 전례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참여를 위해 중요하다.

1) 제대

전례헌장 41항은 '단 하나의 제대(unum altare)'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교회법도 더 이상 '중앙 제대'와 '측면 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제대'라고만 표현한다. 제대의 단일성은 그 강한 상징적 힘을 되찾는다. "성사의 표지로 십자가상 제사가 재현되는 제대는 주님의 식탁이요, 이 식탁에 참석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미사에 모여 온다. 또 제대는 성체성사로 완성되는 감사의 중심이기도 하다".

제대는 성찬례의 희생적 가치와 통교적 가치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식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희생제사의 제단이다. 역할이 분명하므로 그렇게 큰 제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제대는 "벽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쉽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이루는 장소에 놓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제와 신자들은 마치 옛 로마감사기도문의 표현처럼 제대 '주변에 둘러서게(circumstantes)' 된다. 그러나 제대의 중심성은 물리적 측면에서보다 영성적 측면에서 알아들어야 한다.

2) 사제석

“주례자의 좌석은 집회의 사회 직무와 기도를 인도하는 직무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자리라야 한다”. ‘주례하다(presiedere)’라는 단어는 이미 3세기 중엽의 주일 성찬례에 대한 유스티노의 묘사에 언급되고 있다. 주례석의 우월한 위치는, 그리스도의 표지(참조. 전례현장 7)요, 전례회중의 우두머리 격인 주례자에게 주어진 영예이며, 전례회중의 이름으로 또 전례회중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제에 대한 가시적이고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배치되었다. 주례자가 주교일 때에는 ‘주교좌(cathedra)’를 사용한다.

3) 독서대

독서대는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다. 독서대(ambone)의 그리스 어원 아나바이네인(anabainein, 오르다)은 몇 계단 위에 배치된 독서대의 전통적 위치를 기억한다. 시나고가(회당)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은 시리아 전통의 교회에서 독서대는 전례회중의 한 가운데에 배치되었다. 그리스도교 바실리카는 전례에 도입되기 전 시민 바실리카에서 후진(abside)의 강단에 배치된 독서대의 위치를 그대로 보존한다. 독서대에 대한 현행 규정 중, “...독서대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자리에 마련할 것이요, 이동식 가설물이 아니어야 한다. 독서대는 성당 구조에 따라,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례자나 부제나 평신도를 교우들이 잘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유동적인 면이 없지 않다.

4) 감실

감실은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이다. 16세기 이후 (벽에 붙은) 제대의 중앙에 위치한 감실에 성체를 보존하는 관습이 우세하였다.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은 성체를 보존하는 목적들을 제시하고 (병자 영성체의 집전, 미사 밖에서의 영성체, 성체 공경 등), 성체 앞에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성체를 보존할 장소를 묘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 미사경본]은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체께 조배를 드리며 기도를 바치기에 알맞은 경당에 성체 모시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5) 세례대 혹은 성세의 샘

4세기 이후 주요한 성당 밖 가까이에 세례를 집전하기 위한 건물이 세워진다. 그러나 어른 세례자의 감소와 특히 침수예식의 소멸은, 크기를 축소시킨 세례대를 본당 입구 근처, 내부의 제한된 공간에 배치하게 만든다. 교회법에서는 ‘세례대(baptisterium)’라 표현하지 않고, 다만 ‘성세의 샘(fons baptismalis)’이라 표현한다. 1984년의 축복예식서 라틴 표준판(De benedictionibus)은 ‘새로운 세례대 혹은 성세의 샘의 축복’을 위한 기도양식을 제공하고, 일러두기(praenotanda)에서는 “성당의 주요 부분 중에서 성세대와 성세수를 보관하는 장소는 특히 중요하다... 성세성사가 신자 생활의 시작이므로, 모든 주교좌 성당과 본당들은 각기 성세대, 즉 성세의 샘이 흘러나오거나 보관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3. 제의적 건물의 전례제구들

전례용구들에는 전례용기, 전례복과 그밖에 직접적으로 전례적 용도를 위해 마련된 십자가(十字架), 성화상(聖畫像), 종 등이 있다. 이 영역에 필요한 기준들은 전례현장의 제 7장 '성미술(聖美術)과 전례제구(典禮祭具)'에 제시되어 있고, 그에 이어 미사경본의 일러두기(praenotanda)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예배를 위한 건물에 배치된 성화상들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이들은 그리스도교 신심의 역사에서 교리 교육적이고 신비교육적인 역할을 뛰어나게 수행하였다. 어떤 면에서 성화상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현존의 매개체가 되며, 통교로 이끌어 준다. 성화상의 숫자는 지나치게 많아서는 곤란할 것이며, 전례거행을 위해 적합한 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성화상은 결국 고립된 요소가 아니라, 성음악(聖音樂)과 성가의 언어와 함께, 성사적 행위와 함께, 기도와 함께,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중에 십자가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성찬례 거행을 주도하기에, 꼭 제대 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잘 보이는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III. 전례행위: 예식, 표지, 상징 "❤️"

전례거행은 함께 모인 전례회중의 행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명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식의 광대한 다양성 속에 실현된 내용들을 비추어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행위이다. 전례를 거행하는 것은 예식의 형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전례거행은 결국 고유한 언어를 가진 개별 예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 1. 예식

예식은 결국, 인간적 의미를 갖는 행위와 전통적으로 고정된 양식에 따른 종교적 의미를 갖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폭 넓은 용어이다. 예식은 질서에 순응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이미 제정된 구조에 따른 행위이다.

두르크하임(E. Durkheim)에 따르면, '집단의 소개(대표)'라는 사회학적인 전망 속에서, 예식은 한 공동체가 스스로를 소개하고, 고유한 확신, 가치, 믿음을 살아가고, 거울처럼 스스로를 비추어보고, 고유한 계획을 선포하고, 거행하고, 확인하는 순간이다. 예식의 형성은 쉽게 이해된다. 사람은 또한 그의 '세속적' 삶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식의 형태에 따라, 인격 상호간의 통교와 의무를 확립하고, 돕고, 측정하고, 함께 한다. 예식성(ritualitas)은, 특정한 문화 체계 안에서 스스로를 자리 잡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자리 잡게 하고, 관계를 확립하게 하고, 가치를 인정하게 해주는 '상징의 영역'을 이끌어 가는 일관된 모든 것을 말한다.

예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성이다. 예식은 반복 가능하게 계획된 행위이다. 이 관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식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기 위한 항구하고 반복 가능한 과정들의 총체라는 사회화의 넓은 배경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식은, 특정 집단이 더욱 깊은 통합(결속)의 필요성을 느낄 때, 발생한다. 이것은 거룩함(성성) 혹은 초월자와 (결속을 이루는) 사회화의 한 형태이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반복성은 유대 예배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념(memoriale o commemoratio)이다. 전례거행을 구성하는 예식화된 상징적 행위들을 통하여 교회는, '하느님이 전례행위 안에서 기념되는 역사적 과거의 행위의 (현재적) 구원 효과를 이루신다.'고 선언한다. 당연히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기념예식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사건이다.

종교적 예식은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 의존적인 두 가지 단계로 충만한 결합을 이룬다. 첫 번째 그리고 보다 깊은 단계는 거룩함(성성) 또는 초월자와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종교가 예식의 주기와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도덕주의나 영지주의로 전락하거나 혹은 아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종교적 예식이 우선 인간과 초월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로 이해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사실이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 하느님의 의미, 하느님에 대한 경청 그리고 하느님께 간청하는 것 등은 참된 종교적 예식의 근원적 토대이다. 만약 하느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거나, 예식을 통해 이룩하지 못한다면 이 예식은 형식주의로 전락한다. 신앙은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만큼 (예식으로) 거행될 것을 요구한다. 신앙인이 하느님과 자신이 맺는 통교를 표현하는 언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종교적 예식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앞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면, 예식은 반복과 공동 참여를 돕는 전통적 성격으로 이미 형성되고 조직된 체계에 의하여 말과 행위로 구성된 상징적 행위이다. 결국, 상징의 개념과 상징으로서 예식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 2. 표지와 상징

상징 그 자체를 분석하거나 그 본성에 대해 숙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례 거행 행위의 영역에서 가지는 역할과 위치로부터 출발하여 상징에 접근할 것이다. 사실, 상징은 상징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면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의 상징은 정화를 위한 씻음이 되고, 기쁨의 상징은 도유가 된다.

모든 전례적 상징의 핵심은 바로 성사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오늘날 고전 신학(teologia classica)은 성사가 ‘의미하는 것의 효과적 표지(significando causant)’라고 정의한다. 이런 이유로 몇몇 저자는 성사를 ‘전례적 표지’라 말하기를 선호한다. 전례헌장은 전례를 설명하면서 ‘가시적 표지’라고 말한다(전례 7). 그러나 현직 저자들의 대다수는 표지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의 개념이 보다 성사들에게 적합하다고 믿는다: 즉, 성사들은 은총을 의미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사물들이 아니라, 은총을 요청하고 실현하는 상징적 행위들이라는 것이다. 표지는, 그 자체로는, 자신밖에 존재하는 한 실재를 가리킨다: 연기는 불의 존재를 가리키고, 푸른 신호등은 진행을 가리킨다. 상징은 함축적 의미를 더욱 많이 가진 언어이다. 우리가 알도록 할뿐만 아니라, 그의 역동성에 우리가 개입되도록 한다. 상징이 역동적인 것은 관계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실재를 요청하면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련의 관계를 촉발시키면서 활동한다. 전례거행은 다만 통교와 의사전달을 실행시키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실행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예식은 이미 나타내는 것 그것이고, 예식이 속하는 존재의 등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1) 상징이란 무엇인가?

상징은 일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일치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단일성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것들(예를 들어서, 일, 활동 등)을 영성화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또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육체화할 필요가 있다. 상징을 통해서 사람은, 늘 함께 하면서도 그들의 다른 본성으로 인해서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실재들을, 자신 안에 재통합한다. 상징이란 용어의 의미론적인 영역은, 한 집단 안에 수용되어 그렇게 각 개인에게 인정되고 인식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즉 사물, 음성, 동작, 인격 등)로 확대된다. 각 집단과 동일하게 교회도, 신앙의 상징(즉 신경)이라 불리는 신앙 고백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유한 상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식별한다. 그러므로 상징은 특정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상호 식별과 인정의 수단이다.

2) 상징의 역할

사람은 초월적인 지평을 향해 자신을 개방할 때만 실재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되고, 의미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상징적 인간’의 더욱 특징적인 관점은 그의 종교적 차원, 즉 거룩함과 하느님께 대한 그의 피할 수 없는 지향이다. 종교적 상징은, ‘나’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성의 단계에서 체계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험으로 열리게 하는, 인간 존재의 더욱 내밀한 필요성의 표현이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개인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성과 사회적 성질에 따라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실재를 이해하는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이다.

3) 전례적 상징

예식은 상징적 행위이다. 모든 제의적 체계를 구성하는 상징적 구조에 대한 입문은 해당 공동체의 상징적 경험이 시작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과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예배의 상징주의에 접근한다. “상징적 활동과 신앙 사이의 관계들은 우선적으로 성경적 계시의 구조 위에 세워진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교회적 표현과 더욱 조화되는 자신의 표현을 찾아낸 교회에 의해 선택되고 전해지고 해석되는 상징적 언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 3. 신앙을 표현하고 양육하는 전례거행

계시현장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신적 계시는 신자 공동체의 품에서 활동적이고 생생한 전통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의 보편적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사실, 전통의 전달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의 본성에 따르면 그것은 경청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전통은 교회의 교의와 삶과 전례를 또한 포함한다: “교회는 교의와 생활과 전례에 있어서 교회 자신의 모든 것과 또한 교회가 믿는 모든 것을 영구히 보존하며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전한다”(계시현장 8).

그러므로 교회에 맡겨진 '계시의 유산'의 전달과정 속에서, 신앙과 전례와 생활 사이에, 즉 믿는 법(lex credendi)과 기도하는 법(lex orandi)과 사는 법(lex vivendi)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례는 교회의 교의와 삶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전례는 신비의 로고스(logos, 말씀, 즉 교의)도 신비의 에토스(ethos, 윤리)도 아니지만, 자신(전례)의 충만한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필요로 하는 교의와 윤리와 관계를 설정하고 동시에 그들을 함축하는, 신비의 심볼론(symbolon, 상징)이다.

전례현장은 “성사들은 신앙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말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세게 하고, 또한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불린다”(전례현장 59)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성사성은 ‘믿어진’ 신앙과 또 ‘생활하는’ 신앙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글은 대구대교구 장신호 요한보스코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자료입니다.]



기본기도

I. 성호경(聖號經) “❤️❤️”

성호경은 매우 짧은 기도문이지만 가장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입과 손과 마음, 즉 나의 온 존재로서 신앙의 근원인 삼위일체의 신비를 고백하고 구원의 도구인 십자가를 표시하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은총을 비는 기도입니다. 손으로 이마와 가슴과 양 어깨를 짚어가면서 몸에 구원의 십자가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내 몸에 표시함은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신과 이웃과 하느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라고 함은 계시된 모든 교리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리를 믿는다고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의지하여 행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나를 위하여, 나 혼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굳은, 확실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이란 뜻을 지니며 기도문 끝에 붙여 그 기도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손으로 머리를 짚는 것은 내 모든 지혜를 다하고, 가슴을 짚음은 내 모든 정성을 다하고, 양 어깨를 짚음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전례에 따라 성호경을 제대로 염하고 십자표시를 굿자면, 먼저 왼손을 펴서 가슴에 얹고, ‘성부와’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마[온 우주의 주이시며 지혜이신 성부를 가리킴]를 짚고, ‘성자와’ 하면서 가슴[사람이 되시어 사랑을 가르치신 성자를 가리킴]을 짚고, ‘성령의’ 하면서 양 어깨[은총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힘이신 성령을 가리킴]를 짚은 다음, 양 손을 합장하며 ‘이름으로. 아멘’ 합니다. 이때 합장한 두 손의 끝은 약간(45도) 하늘을 향하게 하고 오른손 엄지를 왼손 엄지 위에 얹어 십자형(+)이 되도록 합니다.

II. 영광송(榮光頌) “❤️❤️”

하느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존재와 모든 행위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범죄하고 있기에 하느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 우리 인간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르쳐 주고 그 신비로 초대해 주셨으니, 성삼위께 영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 후에나 일상생활을 포함한 온갖 활동 후 영광송을 드리기를 권합니다. 특히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 다음 영광송을 바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하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렇게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미사 때에는 대영광송과 전문(典文)의 마지막 부분[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으로써 하느님께 우리 모두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복음 전에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성찬식에서는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의 권능과 절대성을 찬양합니다.

Ⅲ. 주님의 기도 “❤️❤️”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주님의 기도’라 하며(마태 6,9-13; 루카 11,2-4), 그 안에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명백하게 포괄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념과 염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세례 받은 자의 특권으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호칭에 따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발음하신 아라메아어로 ‘아빠’라고 하셨는데 아라메아어의 ‘아빠(Abba)’는 젓먹이가 말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무도 일찍이 하느님을 감히 아빠라 부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즐겨 아빠라 부르셨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당신의 품위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신뢰하고 하느님을 보다 가까이 느끼며 친밀하게 대화하라는 뜻으로 ‘아빠’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일곱 가지 청원’을 드리는데 처음 세 가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후반부의 네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은 ‘아버지의 영광’을 비는 것 하나로 요약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통해 세말에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나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내 안에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도록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악의 노예가 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왕권이 하루 빨리 내림하기를 빕니다. 즉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빨리 완성되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즉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청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자 되기를 욕심내지 않고 곤궁을 원하지도 않으며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굳게 믿으며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는 의탁의 자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끼니에 필요한 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최후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신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영혼의 빵[성체]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성체 전에 반드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일용할 양식을 부탁하는 청원에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까지 하느님의 능력과 사랑이 스며들어 하느님의 참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영적 물질적 은혜를 청하는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죄의 용서’를 빕니다. 우리 구원의 첫째 조건이 하느님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시대, 즉 용서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받은 용서를 이웃에게도 베풀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할 용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빌 자격이 없고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께 당연히 용서를 청하며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마련하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의 전조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은총을 구합니다. 즉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기를 빕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유혹에 떨어져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끝맺는데 이는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비는 불안한 어린 자녀의 간구입니다. 진리와 행실을 그르치지 않으며 육체적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혹과 악의 세력 앞에서 움츠러들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생명의 빵과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소리 높여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미사 때 ‘주님의 기도’의 응송) 하며 마음껏 노래합시다.

IV. 성모송(聖母頌 Ave Maria) “❤️❤️”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와 함께 자주 염하는 기도로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찬미와 존경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비는 기도입니다. 성모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리아를 찾아온 대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말, 즉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루카 1,28)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을 알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루카 1,42)라고 인사한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성모 마리아의 전달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호칭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신 분, 하느님과 일치되어 계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 분’이시기에, 대천사의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이 ‘기뻐하소서’ 하며 축하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간택되었으니 이런 인사와 축하를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었기에, 엘리사벳은 성모 마리아에게 대천사 가브리엘보다 더 분명한 말로 인사하며 ‘여인 중에 복되시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인사말에는 자기의 남편 즈가리야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으나,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셨으니 세상의 어떤 어머니보다 행복하시다는 축하의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를 잉태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것은 구세주가 인류에게 베풀고자 하는 모든 은공을 의미 받은 결과입니다. 즉 최악의 손상을 받지 않은 채 항상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구원된 자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며 엘리사벳의 인사는 계속됩니다. 태중에 계신 예수는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머니의 복은 아들의 복이고 아들의 복은 어머니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누리시는 복을 인간의 성모 마리아도 함께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로서 어머니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모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느님[天主]의 어머니’라고 즐겨 부릅니다. 하늘에 올림을 받아 천상 모후의 영광을 누리시는 성모 마리아는 주님과 항상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가장 좋은 은총의 전구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순간, 즉 죽음에 임할 때 믿음과 겸손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 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 특히 성 베르나르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은총 자체이신 구세주를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모 마리아의 청으로 많은 은총을 주신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또한 은총의 중재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모정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죄 중에 있을 때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를 닮아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할 수 있는 굳은 믿음과 깊은 겸손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생활교리-대건인쇄출판사)



전례 典禮 [라]liturgia [영]liturgy

교회의 머리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경배인 동시에 신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경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들을 그 자체로 하는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공적 예배입니다. 가톨릭교회의 모든 공적 경신 예배 또는 경신례(敬神禮)입니다.

I. 어원적 고찰 “❤️”

‘전례’란 의미를 지닌 라틴어 ‘리투르지아’(Liturgia)는 그리스어 ‘레이토우르기아’(Λειτουργια)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그리스어는 ‘백성’이란 의미인 ‘라오스’(λαός)의 형용사인 ‘레이톤’(λειτον)과 ‘봉사, 일, 사업’이라는 뜻을 갖은 ‘에르곤’(ἔργον)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레이토우르기아’, 즉 전례의 어원적 의미는 ‘백성이나 군중의 공공 이익이나 관심사를 위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에서 전례는 성전에서 공적 봉사를 한다든지 제관으로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의례나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전례자(典禮者)라고 하였습니다.

II. 교회 전용어로서의 전례 “❤️”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 교회에서는 경신 예배, 특히 미사를 ‘레이토우르기아’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교회에서 ‘레이토우르기아’를 라틴화하여 전례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16세기 인문주의 학자들이었으며, 19세기에 일반화되었습니다. 전례 행위 안에서는 하느님이 자신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 은총과 말씀과 생명의 진리를 내려 주고 은총과 진리에 감싸인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 아버지께 제사와 감사와 찬미의 기도로 경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하느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총을 받아가며 찬미의 제사와 감사의 기도를 바칠 때에는 언제나 전례가 거행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공적예배인 전례의 요소들을 요약하면, ①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② 그의 창시자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경배입니다. ③ 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 성직자가 ④ 교황청 인준 전례서에 의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전례의 바탕과 근원은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구현하고자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특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인 파스카 신비로 이룬 역사적 구원 행위입니다. 이 구원 행위는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구현할 뿐 아니라(은총과 하느님의 말씀), 은총으로 충만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행위(찬미의 제사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구원 행위를 성령의 힘으로 계속 기념하며 재현하도록 이 신비에 교회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전례 5항 이하) 이는 특히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면서 현존하는 전례적 행위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집전자의 인격 안에 또한 특히 성찬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시어,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십니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 당신 말씀 안에 …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 20)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십니다.(전례 7항). 이와 같이 전례는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의 구현이며 현존이고 적용입니다.

전례는 인간의 성화와 하느님 공경을 위한 대사제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합작입니다. 따라서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전례 7항) 이렇게 모든 전례는 중개자 그리스도를 통한 대화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향해 작용하며,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러한 지상의 전례는 우리 순례의 목적지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전례 8항) 전례 행위는 교회의 몸인 공동체 전체에 관계되고 각 지체는 각자 전례 행위 본질상 그리고 전례적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부분을,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하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례 26~28항)

III. 전례의 범위 “❤️❤️”

인간을 성화시키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의 권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교황청 인준 전례서에 의해 거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채우지 않고 이루어지는 단체적 예배 행위들 및 공동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도 전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격하고 법적인 의미로는 전례라고 하지 않고 신심 행위(信心行爲)라고 합니다. 예전대 교황청에서 신심 행위로 인정한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성시간’과 기타 ‘말씀의 예배’, ‘신심 단체의 기도들’등 여러 가지 기도입니다. 이러한 신심 행위는 교회의 권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성직자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거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황청에서 인준한 전례서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규정된 예식에 따라 거행될 필요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관습이나 풍습에 따라 자유롭게 거행될 수도 있으며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말로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심 행위나 신심 단체들의 신심 행위 중에 사용될 내용과 기도는 교구장의 인준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839조 2항)

IV. 보완적 개념 (전례와 외적 예식) “❤️❤️”

전례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경배로서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적 형식인 예식은 필연적입니다. 사적으로 하는 기도와 행위는 외적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적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강한 심향(心向)과 헌신입니다. 물론 신앙의 실질적 표현이며 ‘신앙과 진리’안에서 거행되는 전례도 내적인 지향이 외적인 형식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전례를 거행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관심사를 눈으로 함께 보고 귀로 함께 듣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단체적이며 공통적인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요성은 전례의 성사를 집전할 때 잘 드러납니다. 그 집전자나 참여자가 비록 내적으로 적극적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사 집전시에 교회가 뜻하는 대로 하겠다는 지향을 갖고 외적 예식을 완결했다면 그 성사는 유효합니다. 전례의 외적 형식인 예식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전례를 ‘예식’ 또는 ‘예절’로 규정짓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20세기 초까지 전례라고 하면 예식이나 예절 또는 어떤 절차와 행위 동작으로 거행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규범들을 생각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전례는 예식과 예절 및 규범들과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정확한 외적 예식과 규범이 없었던 초대 교회의 전례를 생각할 때 이러한 외적 예식들을 전례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외적 예식은 우리의 내적 심향과 신앙과 진리의 공동체적 표현이요 행위이니 만큼 경건하면서도 명료하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V. 전례와 예술 “❤️❤️”

종교는 늘상 예술에 있어서 모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여러 가지 제구나 장식을 구비하면서 고귀한 물질적 피조물을 사용했습니다.(탈출 35-39장) 이러한 물질적 피조물들이 그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조물주 하느님을 찬미하는 경신례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느님의 아들이 육화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데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경신 예배로서의 전례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양식으로 노래, 제구, 성물뿐 아니라 신심의 발전과 함께 교회 건축과 예식, 예절, 성 음악과 성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VI. 전례와 언어 “❤️❤️”

언어란 의사의 표현이며, 이해의 매개체입니다. 어느 종교의 경신 예배든 시공을 초월하는 각 종교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는 사어(死語)가 된 용어를 경신 용어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특성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 공동체의 일치와 통일성의 이유에서 가톨릭교회의 전례 용어도 사어인 라틴어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전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를 표현하는 매개체인 언어가 중요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전례에 대한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이해라는 전례 쇄신의 근본정신에 따라 경신 용어로 모국어를 허용하였습니다. 전례 역사가 증언하듯이 실제로 가톨릭교회의 전례 용어는 문화권을 따라 변경되어 왔습니다. 원시 교회에서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그리스어를, 로마 문화권에서는 라틴어를, 후대 슬라브 문화권에서는 슬라브어를, 소아시아 동방 문화권에서는 각 지역의 모국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 가톨릭 대사전 - 한국교회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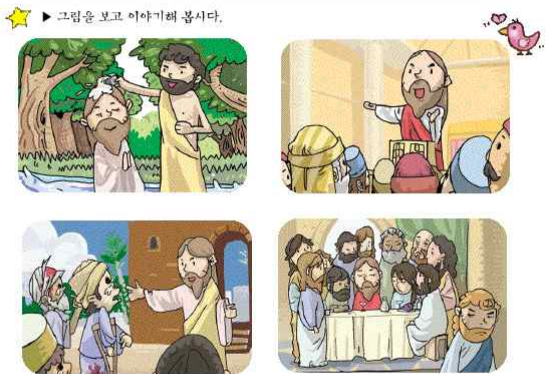
☆ ▶ 무슨 행사입니까?

 ☆ ▶ 이 행사에는 어떤 예식을 할까요?

 ☆ ▶ 국가에서 하는 다른 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 무슨 행사입니까?
- 광복절 행사
- ☆ ▶ 이 행사에는 어떤 예식을 할까요?
- 개회식, 국민의례, 묵념, 공연 등
- ☆ ▶ 국가에서 하는 다른 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현충일, 개천절, 국군의 날 등

▶ 읽어봅시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19-20)



▶ 써 봅시다.
 묵념은 교회의 전통이 지니는 정결이며, 모든 일이 완곡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행위이다. 왜냐하면 사도와 관용의 복음은 모든 이가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그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거룩한 회사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 침묵은 비로소 하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전례헌장 10항)

학습목표

- 교회의 전례에 대해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험

- 교회의 전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국가행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이다.
-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국가 행사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일정한 형식을 가진 행사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메시지

- 마태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함께 바치는 기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례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림을 통해 예수님의 전례에 대해 알아본다.

- ☆ ▶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 그림을 통해 지금 전례에 맞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
<세례식, 미사의 말씀의 전례부분, 병자 성사, 성체성사>
- 세례를 받으시다(마태 3,13-17; 마르 1,9-11; 루카 3,21-22)
- 말씀선포(마태 4, 12-17; 요한 6, 22-59)
- 병자치유(루카 17, 11-19)
- 성찬례 제정(마태 26, 26-30; 마르 14, 17-26; 루카 22, 17-23)

성경말미

마태오 복음서에서 네 번째 강화(18,1-35)는 그리스도도 공동체인 우애 단체를 다루고 있다. 이 강화는 공동체의 실제 상황과 형제들의 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훨씬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다.

- 19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구하여야 한다.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도 약속에 대한 자신을 갖기에 충분하다. 함께 바치는 기도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는 좀 더 객관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

- 20절


주님께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수의 양떼 사이에 현존하여 계신다. 그들이 “당신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즉 그들의 모임이 메시아 예수께 대한 공동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두고 있을 때 주께서는 창으로 그들을 찾아오신다. “이름”이라는 말은 존재의 실존과 전체적인 실재를 의미한다. 공동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오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두 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공동 신앙 고백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사도 4,12).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현존하신다. 교회의 공동 기도는 인도를 받으며 허락될 것이라는 확신을 받는다.


<영적독서를 위한 사도행전 참조>

★ 전례가 되기 위한 조건


♡ 전례 거행의 주체
전례는 누가 하나요?



♡ 전례 거행 장소
전례를 아무데서나 해도 되나요?



♡ 전례 행위 (예식, 포지, 상징)
전례를 하는 행동에는 무슨 뜻이 있나요?



★ 알아둡시다.

전례의 종류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인 와 우리를 초자연적 생명에 참여시키는 와 교회가 드리는 성무일도가 있습니다.

★ 다음에서 전례와 전례가 아닌 것을 찾아 써 봅시다.

전례 미사, 십자가의 길, 성사, 성시간, 묵주기도, 성모의 밤

비전례

깨달음

- 전례가 되기 위한 조건과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 전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앞에서 제시된 ‘4학년 핵심 곡곡’을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 알아둡시다.

전례의 종류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인 **미사**와 우리를 초자연적 생명에 참여시키는 **성사**와 교회가 드리는 성무일도가 있습니다.

★ 다음에서 전례와 전례가 아닌 것을 찾아 써 봅시다.

- 전례 : 미사, 성사
- 비전례 : 십자가의 길, 성시간, 묵주기도, 성모의 밤

성시간 聖時間 [라]hora sancha [영]holy hour

예수의 고통 특히 제세마니에서 당하셨던 고통과 예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기리며 특정 시간에 갖는 기도의 신심. 성체 현시와 함께 거행되는 비전례적인 신심행사인 이 성시간은 매월 첫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에 거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언제 어느 시간에나 거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시간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시간’을 뜻하며, ‘기도에 봉헌된 시간’을 의미한다.

I. 유래와 전파(예수 성심 신심)

성시간 신심은 예수 성심 신심과 관련이 깊다. 예수 성심 신심의 주제는 제한 적이기는 하나 예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기억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영성은 구세주인 성자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상처 입은 성심에 의하여 표현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성심' 인 것이다. 이 신심의 주제는 19세기에 예수의 구원적인 사랑에 임해진 모든 치욕들을 위한 '기워 같음' 혹은 '보상' 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완성되었다.

예수 성심 신심은 성 베르나르도(Bernardus de Clairvaux, 1090~1153)의 그리스도 수난에 대한 신심을 시작으로 13세기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에 의하여 대중적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 예수회 회원들이 이 신심을 열심히 전파함으로써 완덕에 대한 열망이 예수의 내적인 삶, 즉 성심의 공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성녀 알라코크(Margarita Maria Alacoque, 1647~1690)는 자신이 체험한 환시로 이 신심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성 에우데스(Jean Eudes, 1601~1680)가 렌(Rennes)의 주교로부터 예수의 성심을 공경하는 축일을 지내도록 허락받은 뒤 이 축일은 1765년에 교황 그레멘스 13세(1758~1769)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가되었으며, 1856년에는 교황 비오 9세(1846~1878)에 의하여 로마 전례력에 삽입되었다. 그리고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1956년에 예수 성심 대축일 설정 100주년을 맞아 회칙 <하우리에티스 아쿠아스>(Haurietis Aquas, 1956.3.15)를 발표하여 예수 성심 공경의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 하였다.

II. 신심의 거행

죽음의 고통에서 고민하는 예수와 함께 지내며 기도하는 것이 이 신심의 주된 내용이다. 성시간은 홀로 혹은 여럿이 함께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의 자정을 중심으로 한 시간 동안 시행되는데 성심의 고통을 묵상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기도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공적인 성시간은 일반적으로 성체 현시와 함께 진행되며, 개인적으로도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년 동안 날마다 자기가 참례한 전례를 표시해 봅시다.

전례 참석 실천표

신치사항 : 이사, 영신제, 고백성사
 + 한 가지, ☆ 두 가지, ♥ 세 가지

1월	2월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월	5월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월	8월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월	11월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



응답

- 전례 참석 실천표를 작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1년 동안 날마다 자기가 참례한 전례를 표시해 봅시다.

- 학생들이 매일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표시에 따라 본당의 행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예 : 은총잔치, 전례 왕)